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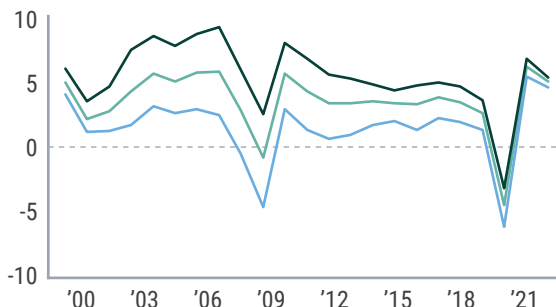
- 세계경제는 각국의 방역체계 강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및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등 세계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세계경제 및 주요국의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코로나19와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2021년 들어 경제성장률 회복세가 나타났으며, 2021년 상반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 실업률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선진국일수록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간 코로나19 대응 격차에 따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일부 신흥국에서는 금융불안정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증가가 소득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I. 세계경제환경

IMF는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이 전년(-3.1%) 대비 9.0%p 상승한 5.9%, 2022년에는 4.9%일 것으로 전망

경제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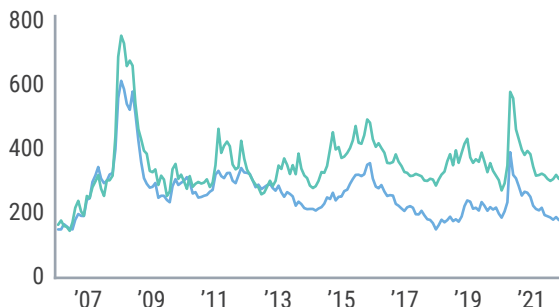
— 세계 — 선진국 — 신흥국



글로벌 신용위험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통화정책 전환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장기채권금리는 등락을 보임

글로벌 신용위험지표 추이 (bp)

—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 신흥국채권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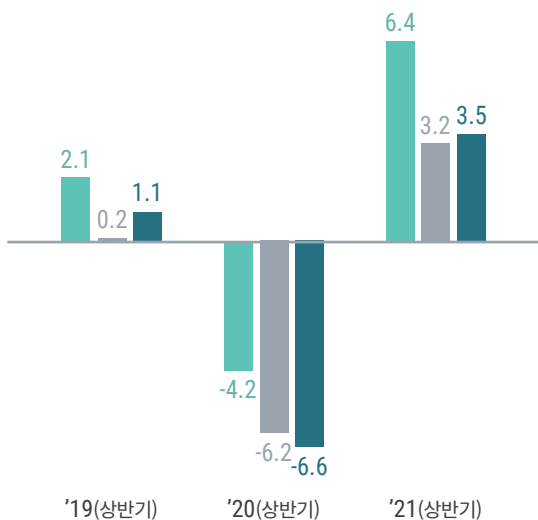


II. 선진국 신흥국 경제 현황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미국, 일본,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들어 회복세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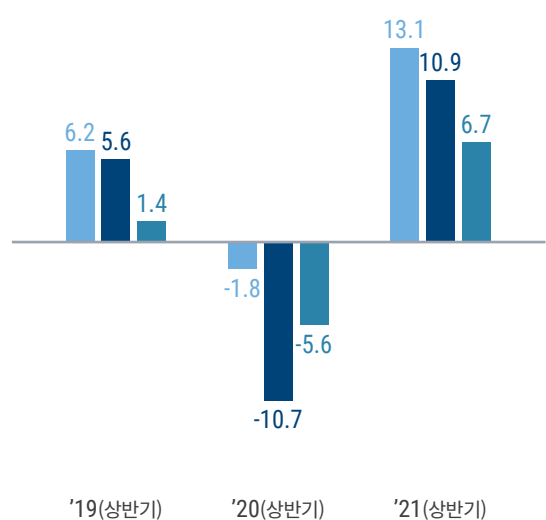
■ 미국 ■ 일본 ■ 독일



2021년 들어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중국, 인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

주요 신흥국 경제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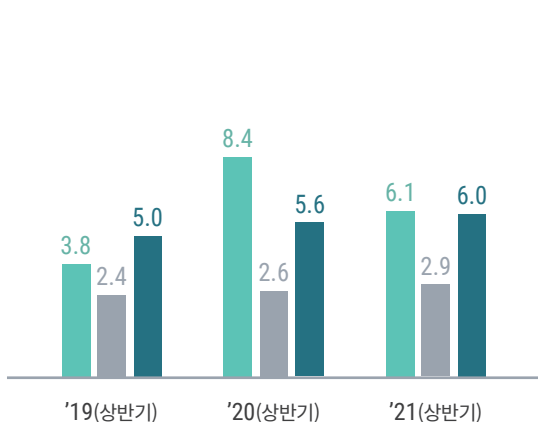
■ 중국 ■ 인도 ■ 브라질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독일의 실업률은 모두 상승하였으며 2021년 들어 미국 실업률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일본, 독일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상승

주요 선진국 실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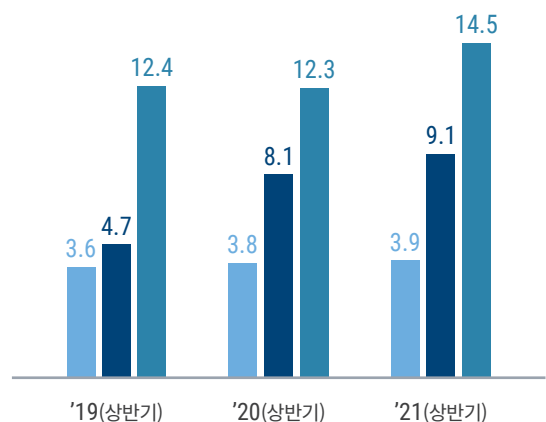
■ 미국 ■ 일본 ■ 독일



2021년 들어 중국, 인도, 브라질의 실업률은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였으나 이후 고용 개선세가 전망됨

주요 신흥국 실업률 (%)

■ 중국 ■ 인도 ■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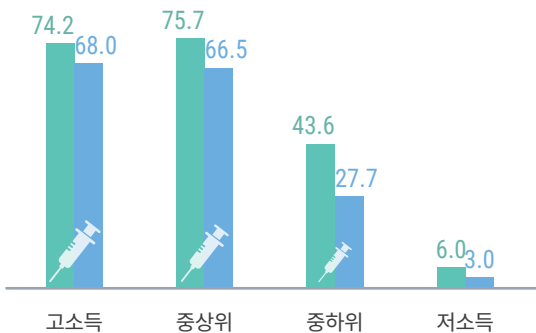
III. 코로나19 대응과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1. 국가별 대응 격차와 백신 보급의 불평등에 따른 리스크

중하위소득국가, 저소득국가의 백신접종 완료 인구 비율은 각각 27.7%, 3.0%로 고소득국가 및 중상위 소득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

전 세계 백신접종 인구비율 현황(11월말 기준) (%)

■ 1회 이상 백신 접종 인구비율 ■ 백신접종 완료 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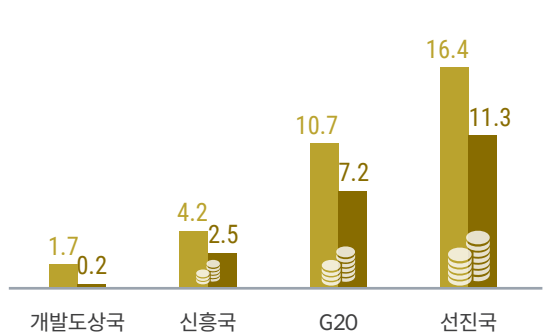


백신 보급의 불평등은 국가 간 경기 회복 속도의 격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변이 출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를 야기할 수 있음

선진국일수록 GDP 대비 추경 등 추가 재정지출과 유동성 제공(대출 및 보증) 정책의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GDP 대비비율 (%)

■ 추경(세입경정 포함) ■ 정부 대출 및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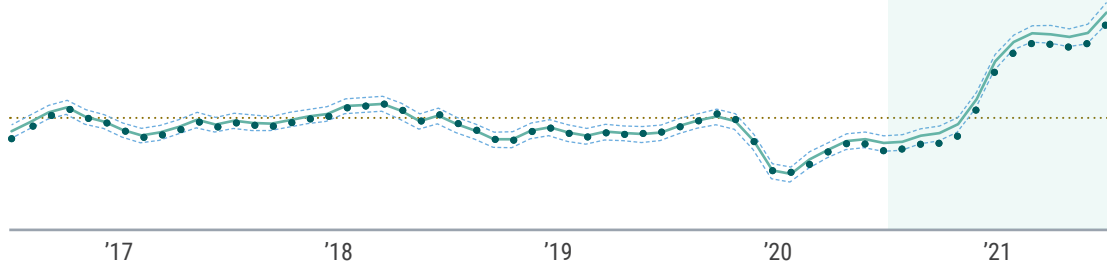
선진국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점검하고,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불안정성 리스크를 분석

2. 인플레이션 리스크

인플레이션률이 각 시점에서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변동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변선행추세모형을 적용한 결과, 주요국 인플레이션률의 현 수준이 최근 5개년 평균보다 높지만 단기추세에 비해 낮은 상태로 나타남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이 (최근 60개월) (전년 동월 대비 %)

● 관측값 — 단기추세 --- 97.5% --- 2.5% 5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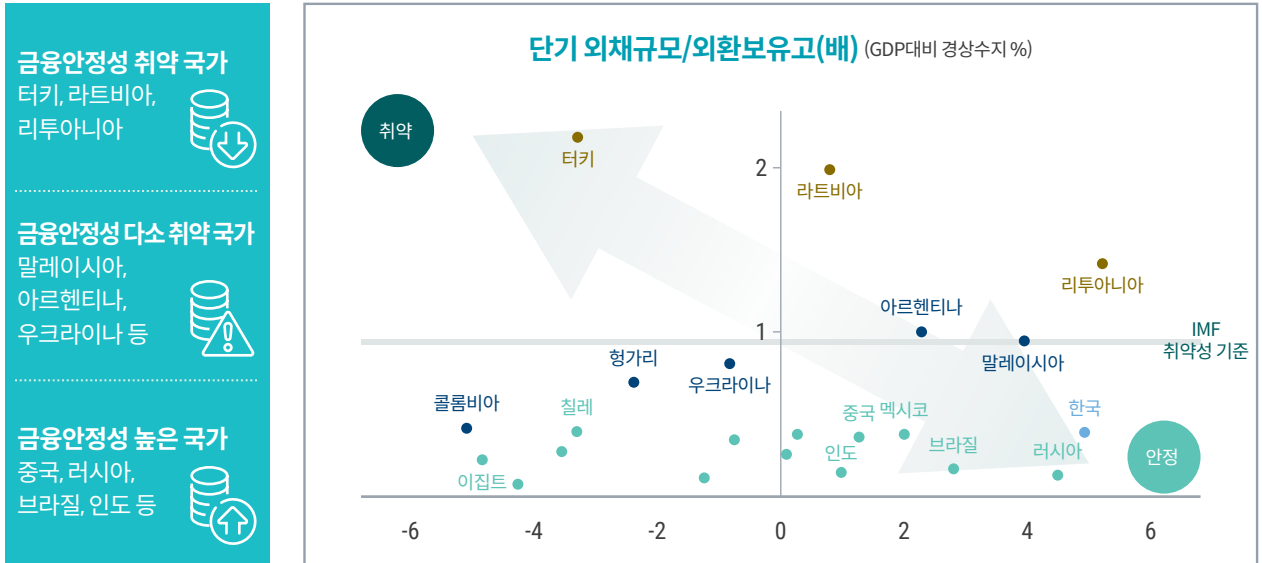


* 자료: Datastream

분석대상은 주요 5개국(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과 한국의 전년동기 대비 월별 인플레이션률이며, 기간은 50년(1972년 11월~2021년 10월)임.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률이 단기추세 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은 상태여서, 단기추세로 회귀하면서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

3. 신흥국 금융불안정 리스크

-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신흥국내 유입되었던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부각될 우려
-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GDP대비 경상수지, 외채 상환 능력을 분석하여 금융불안정성을 점검



4. 소득불평등 리스크

OECD 회원국의 1996~2019년 자료를 대상으로 유동성 증가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협의 유동성(M3)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과 추정값의 크기를 참조할 때 해당 관계의 경제적 함의가 크지 않을 수 있음

